

특별기고

도전 두려움같은 환경이 청년 춤추게 한다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장·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에 비해 채용 공고도 많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일자리의 폭이 훨씬 넓어요, 생활비는 비록 많이 들지만 이와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서울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역의 청년 인력 유출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서 2년간 1만4천명 떠나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유별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하긴 했으나 타 시도에서 광주시로 전입한 사람은 총 1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1%나 감소했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지역에 단순 적용하는 '수도권 따라하기'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는 어떠한가? 광주시는 첨단산업단지에서 인공지능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착한 기업들은 이런 시설들을 연내에 타 지역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창업 적극 도전 기대

청년 창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00세 시대에 청년의 창업도전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면서 성장했다.

기고

춘래불사춘, 중기·소상공인 마음 다독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춘래불사춘, '봄이와도 봄이 아니다' 라는 고사성어다. 추운 겨울이 지나갈 바라며 봄다운 봄을 손꼽지만, 때때로 흠뻑 봄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요즘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마음도 이러한 듯 하다.

만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자 금난 걱정엔 밤잠을 설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더미만 늘어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한다.

국내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기존 부채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기업부실 위험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투자가 하방추세를 보이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신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저신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리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또다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가상승 억제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융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돼 금융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등 이들을 위한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도민에게 '전남도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라남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선 지난 2월 15일에 전라남도,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전라남도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최초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이차보전자금 지원

협약'을 맺었다. 전남도·금융회사(8개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그동안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신용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고신용자보다 이자 감면율이 훨씬 높은 5~6% 수준의 감면 이자로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날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경영부담 감경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나'일 때 보다 '우리'일 때 더 멀리 볼 수 있다.

같이 있어 더 가치 있는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등불이 돼준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지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험난하고 긴 여정에 늘 동행할 것이다.

사설

'군공항 바로알기' 주민 수용성 높이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빛어지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민에게 이전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에 나섰다

전남도 공무원이 주도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일까지 나주·함평·무안·목포와 광주, 순천 등에서 진행되는데 전단지 배포와 군공항 이전 방향 등이 소개된다.

지는 주변에 취락지가 없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비행경로와 활주로 방향, 전투기 훈련 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대책이 설명되어야 한다.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 예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군공항 이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 국면에서 비껴나 군공항이 어떤 식으로 건설되고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소음 피해가 어떻게 막아지는지 자세히, 설득력 있게 알려줘야 한다.

이번 캠페인 전개는 이런 점에서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것이다. 더 나아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원하는 통 큰 결단을 위해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전라도 천년사'를 둔 논란이 뜨겁다. 일제 식민사관 등 역사왜곡 시비가 불거진 이후 재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정명 천년(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전북도는 천년사 e북을 지난날 24일부터 2주간 공개키로 결정했다.

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북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는 최근 "2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사서를 단 2주 동안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각성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공람 기간 연장 등 공정성 담보를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역사서 편찬은 역사 주권을 공고히 지키는 엄중한 작업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홍보 절실

기지수첩

김혜린

사회부 기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뭔데요? 신청비 없어도 안 할래요."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0여년간 자리를 지켜온 분식점 업주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당연히 신청할 의향이 있다'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 신청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한 학부모가 되려 업주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권유하는 등 아동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감시망은 여전히 느슨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통학로나 공원에 위치한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인근 업소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홍보 부재로 인지도와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난 2021년 303개소에서 현재 268개소로 감소했다.

경찰당국은 별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아 참여 독려가 어렵고 휴폐업으로 인해 해충된 업장이 많지만 사업장 업주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중요한만큼 경제적으로 무분별하게 위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주들의 참여 의지가 없는 것과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위험한 상황에서 처한 아이들이 어디서든 지킴이집 표지판을 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학교 인근 사업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제도 홍보가 절실하다.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1989-2005) and subscrip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including a QR code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